

사회

내일 수능...광주시·경찰청 수험생 수송 만전

지각 우려땐 '112' 부르세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8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이 112를 통해 긴급수송 작전을 벌인다. 또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은행도 오전 10시부터 영업한다.

6일 광주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이 수능 당일 범죄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시험장까지 이송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수능 시험일 아침 6시부터 시험 시작때까지 시험장에 지각하거나 잘못 찾아가는 경우,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지각한 수험생이 신고하는 경우 '긴급신고'로 우선 처

리해 최대한 안에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보내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능 당일 오전에는 전국 시험장 주변 2km 이내 간선도로의 교통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수험생이 이동하는 경로나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차량진·출입을 차단해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수험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12개 기관 645명을 투입해 수험생 수송 등을 돕기로 했다. 또 광주시에 37개 시험장 주변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도 강력 단속한다. 은행들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한다. 올해 수능은 11월 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한편 7일 오전 10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이 출신고교와 각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예비소집 장소에서 수험표를 받고 나서 자신이 응시하는 선택영역과 영역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과 시험 배치도, 교통 안내, 답안지 기재 요령 등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는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월동준비 동물원

입동을 앞둔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 유라시아 초식동물 우리에서 동물원 직원들이 그늘 초막에 이영 없기를 하느라 분주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9분 / 해질 17시 33분 / 달맞이 13시 08분

아침 안개, 오후 햇빛

오전한 때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지역	기온
광주	맑음 8/15°C
목포	맑음 9/15°C
여수	맑음 9/16°C
나주	맑음 6/15°C
완도	맑음 10/16°C
구례	맑음 6/15°C
강진	맑음 7/15°C
해남	맑음 8/16°C
장흥	맑음 7/16°C
순천	맑음 5/15°C
영광	맑음 7/14°C
진도	맑음 10/15°C
전주	맑음 7/14°C
군산	맑음 7/13°C
남원	맑음 4/13°C
옥산도	맑음 11/15°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서해 북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동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주의 낮음 낮음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8/16	7/17	8/16	10/14	8/12	8/13

정시 13만5277명 모집

내달 원서 접수... 수시 합격자는 지원 못해

다음 달 원서를 받는 201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은 작년보다 선발 인원 비율이 줄어든다.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와 총원합격자는 모두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은 13만5277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37만9458명의

35.7%다. 지난해 보다 9803명이 줄어든 수치로 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포인트 낮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공과과기원 포함)의 201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 사항을 6

일 발표했다. 올해는 수시 총원 합격자도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응시가 금지돼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시전형 원서 접수는 가, 나, 가/나 군은 다음 달 21~26일(6일간)이며,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은 다음 달 22~27일(6일간) 사이에 한다. 대교협은 입학전형이 끝나고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복수지원 위반사실 등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화한다.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총원합격자 포함)와 군별 지원 위반자도 적발한다.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사고 확 줄었다

작년 80명... 5년생 절반 이상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면서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07년 17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2011년에는 80명으로 5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5.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8429개소에서 1만4921개소로 77% 늘었으며, 1000개소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7년 1.1명에서 2011년 0.7명으로 36.4%가 감소했다.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 2007년 2.3명에서 2011년 1.3명으로 43.5% 줄었다. 특히 이는 지난 2010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치인 1.4명보다 낮은 것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 지난 2007년 OECD 평균치는 1.9명이었다.

도로교통공단 황상호 센터장은 "최근 어린이교통사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워킹스쿨버스 운행,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부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자 범칙금 2배 인상, 홍보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급식조리원 9일 파업...광주·전남 학교급식 차질

학교 급식조리원 등이 주축인 비정규직노조가 호봉제 도입, 수당현실화를 요구하며 9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결행하기로 해 광주·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6일 양 시도교육청과 이 지역 학교 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총과업 결의에 따라 9일 하루 동안 학교급식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급식 종사원 등의 총과업이 실시되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원의 80%가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들이어서 이날 유치원, 초·중·고교의 점심·저녁 학교급식 업무는 거의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의 경우 307개 초·중·고교 중 298개 학교에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고 급식업무 종사자는 조리원 1734명, 조리사 235명, 영양사 168명이며 파업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학교급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남지역 학교에서도 4300명이 비정규직 노조원이며 이중 80%가 급식 업무에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구 재활용품 처리업무 민간위탁 즉각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동안 잡음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자로 제한을 하더라도 자격 업체들이 수십 곳에 달해 특정 업체에 몰아넣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메네, 편의점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시공 | **나로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텔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o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재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뿜어** 눈이 침침하고 어둡힐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진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120017-총-11712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앞글자만 보이거나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